

불법의료 근절 치협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 '불법의료감시단' 발대식

치과계를 비롯한 관련 소비자시민모임과 주요 의약단체가 공조, 불법의료행위 척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3월 3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욱·이하 소시모)이 주최한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합시다 - 불법의료감시단 기자회견 및 발대식'에서 안성모 협회장은 보다 적극적인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을 요구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불법 의료행위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행위"라며 "현재 치과계에서도 불법 치과의료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화 사서함을 이용한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제를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 협회장은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과 불법의료행위자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활동, 불법 치료 의료행위의 위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치협은 이번 불법의료감시에 소시모, 의협, 한의협, 간호협과 함께 공동 주관단체로 활동하게 된다.

4개국 제출 정관개정안 "부결" 28차 파키스탄 APDC 아쉬운 폐막

제28차 파키스탄 APDC가 민주적이고 국제 표준을 요구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의 정관개정안이 부결된 채 2월 27일 아쉽게 폐막했다.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Oral Health for all'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파키스탄총회의 주된 초점은 대표자회의(델리게이트 미팅)에서 논의된 한국 등 4개국이 상정한 정관개정안이였다.

4개국의 정관개정안은 APDF의 실질적 권한자인 사무총장의 연임 규정을 폐지, FDI 규정대로 바꾸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허술하게 명시된 현 정관의 각종 규정을 국제적인 관행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었다.

카라치 웨라톤 호텔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는 4개국이 올린 새 정관개정안 채택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20여년 동안 사무총장직에 재임하고 있는 헤네디기 사무총장이 자신의 장기집권에 방해가 되는 4개국의 정관개정안을 APDC 회원국들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한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두 번째 대표자회의가 열린 2월 27일 정관개정안 표결 결과 참가국 4개국이 제출한 정관개정안은 투표 참가 14개

국 중 8개국 지지를 획득했으나, 현행 정관 규정이 75% 찬성을 받아야 개정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결국 부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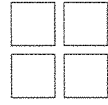
이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2/3만 찬성하면 정관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현행 정관의 정관 개정 규정이 전근대적이고 국제 관행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부결 직후 한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 4개국 대표들은 부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발표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회의장을 나선 4개국 대표들은 추후 각 협회로 돌아가 향후 APDF의 장래가 포함된 확실한 대응안을 마련, APDF를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국제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을 강력 추진키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FDI 미셸 아덴 회장이 대표자회의에 참석, 국제관행에 벗어난 현 헤네디기 총장과 일부 회원국 대표들의 회의 진행방식을 보고 놀라움과 분노를 표시했으며, APDC 장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28차 총회에서는 문준식 국제이사가 치협 대표로 참석,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정관개정안 관철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치협·현대 유니콘스야구단 “금연운동 함께 펼친다” 수원구장내 치협 금연존 설치키로… 금연위 결정

치협이 대국민 금연 운동사업 전개를 위해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과 손을 잡는다.

치협 문화복지위 산하 금연위원회는 3월 7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제 5차 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의 홈구장인 수원구장 내 치협이 주관하는 ‘금연존’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인식 체결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특히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 선수가 금연존을 통과하는 홈런을 칠 경우 해당 선수의 이름을 새긴 칫솔을 선수의 사인 볼과 함께 전국 초·중·고 분교생 전원에게 보내는 이벤트를 진행, 치협의 대국민 금연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김현순 문화복지이사는 “3월 18일부터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의 시범 경기를 포함해 4월부터는 메인 경기가 시작되는 만큼 조인식을 체결하고 국민에게 한 발짝 다가간 이번 대국민 금연운동 전개 사업이 치과의사 전문가 집단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전국 치과의사 흡연실태조사, 치대생 금연교육

등 치과계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금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도 관련 사업을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올 하반기 중 치협이 주관하는 국제 금연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치과의사들이 전문적인 금연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협 홈페이지 내 ‘사이버 금연운동’ 코너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사이버 상의 금연운동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관련 사이트를 통해 전국치과의료인과 진료 스태프,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흡연 등의 에피소드 및 수기를 공모하고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연위원회는 한편 전국 시도지부가 치과계 금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13일 제천 소재 모리조트에서 전국 시도지부 문화복지 이사 및 금연위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치과계 현안 활발한 의견교환 치협 고문단회의

치협 고문단과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치과계 전반에 걸쳐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치협이 3월 15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고문단회의에는 미국에 있는 이영옥 고문을 제외한 전 고문들과 명예회장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정부 및 대 국회 관계를 비롯해 치과계 위상 강화 방안, 치과의료 보험정책, 치과의사 인력 배출, 4월 대의원총회의 이슈 등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고문단과 회장단은 또 치과의사 윤리의식 강화 방안, 지도치과의사제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치과계 영향, 학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회원 자율징계권 이

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활동, 노인틀니보험 대책, 공보의 감소 등에 대한 치협의 입장과 대처방안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성모 협회장은 “오늘 회의에 모두 다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오는 4월 29일 대의원총회에도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총회가 끝나고 다시 만남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고문단에서 김인철·지현택·윤홍렬·김정균·이기택 고문과 정재규 명예회장이 참석했다. 치협 회장단에서는 안성모 협회장, 이수구·김동기·김재영·안창영 부회장, 김성욱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